

## 신부님이 입는 제의가 궁금합니다

사제는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 전례복을 입습니다. 이는 일상생활을 떠나 하느님께 봉헌하는 제사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.

### 1. 개두포(蓋頭布, amictus)

전례복 중에서 가장 먼저 착용하는 것으로 장방형의 흰 천 양쪽에 긴 끈이 달려있어 어깨 위로 걸쳐 허리에 고정합니다. '구원의 투구'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. 사제는 개두포를 착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: "주님, 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어, 마귀의 공격을 막아 내게 하소서."

### 2. 장백의(長白衣, alba)

개두포 위에 입는, 발끝까지 내려오는 백색의 긴 옷입니다. 사제가 미사성제를 드리며 지나는 육신과 영혼의 결백을 상징합니다. 장백의를 입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: "주여, 저를 깨끗이 씻으소서. 제 마음을 어린양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어 저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소서."

### 3. 띠(cinctura)

장백의가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허리에 매는 끈으로 양쪽 끝에 장식 술이나 고리가 달립니다. 일이나 싸움에 임할 때 갖는 결의를 상징하며 악마와의 투쟁과 극기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합니다. 띠를 매면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: "주님, 저를 순결의 띠로 묶어 주소서. 제 허리에서 비천한 욕정을 없애시어 제 안에 절제와 정결의 덕을 쌓게 하소서."

### 4. 영대(領帶, stola)

사제가 성무 집행의 표시로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좁고 긴 띠입니다. 사제의 직책과 의무, 권한과 성덕을 나타내며, 이를 착용할 때는 친구(親口)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: "주님, 주님께 봉사하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원조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불사

불멸의 영대를 제게 도로 주시어,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."

### 5. 제의(祭衣, casula)

미사를 드릴 때 장백의 위에 입는 반추형의 옷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상징하고 애덕을 표시합니다. 제의를 입으면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: "주님, 주님께서는 '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.'고 하셨으니,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짐을 잘 지고 가게 하소서. 아멘."

제의는 당일 전례의 의미에 따라 그 색상이 바뀝니다.

- ① 백색(기쁨, 영광, 결백) - 성탄시기와 부활시기, 예수님의 축일(수난에 관한 축일 제외)과 성모님 축일,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의 축일(순교자 제외)
- ② 홍색(성령, 순교) - 주님수난성지주일과 성금요일, 성령강림대축일, 성십자가현양축일,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축일, 순교자들의 축일
- ③ 녹색(희망) - 연중시기
- ④ 자색(통회, 보속) - 대림시기와 사순시기
- ⑤ 장미색(기쁨) - 대림 제3주일과 사순 제4주일 🌸

평소 궁금했던 점을 이메일(jubo@uca.or.kr)로 알려주시면, 주제를 선정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